

천연물화학분야 개척한 禹麟根 박사

대담 / 李光榮
 〈한국일보 부국장/본지 편집위원〉

우리나라 천연물화학분야 발전에 기초를 다지고 특히 인삼 연구에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우인근(禹麟根) 박사는 선배와 친구가 주선했던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20평 남짓한 옛 한옥에서 50년 가까이 살고 있다. 그 흔한 아파트 한번 신청하지 않은 것은 서울대 생약연구소를 평생 맴돌다 보니 이재(理財)는 물론 이사 자체를 아예 생각해 보지도 못한 주변없는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뜻을 새기기 위해 그대로 눌러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천연물화학연구에 심취해서 밤을 낮처럼 새던 옛일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우인근박사는 1914년 1월 17일 황해도 안악(安岳)에서 6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올해 82세. 요즘은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 9시경 집을 나와 혜화동으로 해서 창경궁을 한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선생님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산학교때 짚신신고 통학

내가 태어난 안악은 황해도 중에서 도 산골에 속합니다. 그리고 김구(金九) 선생이 한때 이곳에서 소학교선생님으로 계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는 안악공립보통학교를 나와 오산(五山)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는데 내가 오산학교를 가게된 것은 선친(禹官植)의 선택이었습니다.

오산고등보통학교엔 당시 이 학교를 세우신 남강(南岡) 이인환(李寅煥·字昇薰)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광수(李光洙)·조만식(曹晩植)·함석헌(咸錫憲) 등 유명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대부분이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오산학교는 지식은 둘째이고 학생 개개인의 인간 됄됨이에 관심을 두고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의 규모나 시설은 보잘 것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대부분 짚신짝에다 두툼한 버선을 신고 다니는 찌죄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산학교에 진학한 것을 크게 후회했지요. 그러나 오산학교는 내 인생진로를 잡아가는데 큰 영향을 준 곳으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하기 위해 하숙집에 고리짝 행장을 풀자 옆방에 유숙하는 상급생이 불쑥 찾아와서 자기가 쓰던 교과서 일체를 전해 주었습니다. 교과서 군데군데 줄이 쳐진 곳이 있었지만 이를 지워 깨끗이 쓴 다음 내년에 후배에게 다시 물려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생면

부지의 한 졸업생이 찾아와 자신이 쓰던 책상과 책상열쇠를 전해 주더군요. 이는 오산학교의 전통이지요.

학교를 둘러싼 1백여호의 하숙집은 기숙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학업이 파하고 난 저녁이면 선생님들이 번갈아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말해 주었지요. 이는 창립자이신 남강 이인환 교장선생님의 교육정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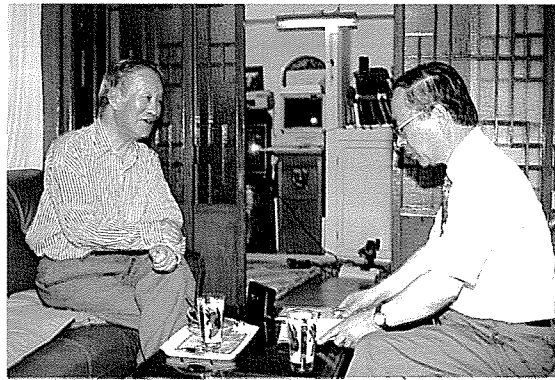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오산학교에서도 이 사건에 동조하는 시위가 일어났지요. 시위 학생들은 교정에서 30리길 되는 안주(安州)읍까지 행진시위를 했습니다. 남강 선생님은 출근하던 길에 이를 보시고 곧 바로 학생들 뒤를 따라오셨습니다. 정주읍에 도착해 보니 경찰이 짝 깔려 있었습니까. 남강선생님은 이를 보시고 “영웅이 되기 위해 감옥에 가지는 말아라”며 만류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에 함께 부동켜 앉고 통곡했지요.

함석헌선생이 역사 강의

함석헌선생님에 대한 인연도 잊지 못할 일중의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역사를 가르쳤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자신을 개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지요. 함석헌 선생님은 역사시험 문제를 “광주학생 사건을 비판해 보라”는 식이었어요. 오산학교는 이렇듯 공부와는 거리가 있었어요.

■오산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4년 경성약학전문학교(京城藥專)로 진학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오산학교에서는 공부를 중요시하지



▲우바사(좌)는 후학도들에게 공명심에 빠지지 말고 자기만족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다.

않았기 때문에 졸업 후 갈 곳이라곤 전문학교 수준이었습니다. 경성약전은 선배 한분이 “이 학교를 나오면 취직이 잘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 택하게 됐지요. 3년과정의 이 학교를 졸업(1937년)한 후 곧 철원에 있는 강원도립병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봉급은 그런데로 괜찮은 편이었으나 하는 일이 매일 같이 약봉지 싸는 것이었어요. 한 2년 이 일을 하다보니 싫증이 났고 약봉지를 싸기 위해 지금껏 공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을 가르쳤던 구다니(九谷)선생님을 집으로 찾아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마침 구다니선생님은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조교수로 발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구다니선생님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세기하라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연구소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학교 어학실력으론 어려워니 1년 정도 독일어를 공부하고 오라고 했지요.

구다니교수는 내가 독일어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자 일본 동경대학에 1년간 연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

다. 연수를 마치고 오니 곧 경성제국대학 조수(助手)로 발령(1940년)을 내 주었습니다.

■광복 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광복 후 일본인 교수들이 물러나자 초대 소장을 맡은 오진성씨를 비롯해서 석주명(石宙明·박물학)·장형두·

이용두·권승표(權肅杓·약학)·유경수씨 등이 남아 함께 생약연구소를 지키고 가꾸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개성의 생약연구소는 송악산 이북 초소 바로 밑에 자리잡고 있어 항상 불안했습니다. 마침내 북한군은 1949년 6월경 박격포탄을 마구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지요.

■6.25동란으로 인해서 연구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험기구, 다리미틀에 개조

나는 1946년 서울대 부교수에서 50년 교수가 되어 한창 연구열에 빠져들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개성의 생약연구소 시절부터 천연물화학 그중에서도 약초의 성분분석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초기엔 실험기구가 없어 전기다리미의 열선을 뜯어내 플라스크를 데우는 히터로 개조해서 실험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천연물의 원소분석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졌습니다. 나는 피난을 엄두도 못한 채 우물쭈물하다가 서울이 북한군에 떨어졌어요. 어느날 아는 분이 찾아와 살아갈 길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를 따라 가보

나 이미 20여명의 교수들이 모여 있었는데 북한으로 가게 된다면 모두들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속았구나 했지만 때는 늦었어요.

이 곳에서 북한으로 끌고 갈 사람을 심사했는데 경성약전 1년 선배인 이길상(李吉相·화학)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심문관 중에 잘 아는 제자가 있어 북한행을 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도 부탁해서 명단에서 뽑아 준 것입니다. 그러던중 서울대 교수로서 중앙대 교무처장을 겸하고 있던 윤태림박사로 부터 중앙대 약대 신설을 위해 도와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대약대는 양영호·홍문화(洪文和)·김재훈씨 등이 주축이 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성분석을 강의했는데 실험을 위한 기기는 상당수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인삼의 성분분석과 약효에 대해 남다른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년동안 500여편의 논문발표

내가 인삼의 사포닌 성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수복 직후부터입니다. 나는 한약의 많은 유효성분이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難溶性)으로 되어 있는데 왜 물에 다려 먹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졌지요. 인삼도 처음엔 같은 이유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이 유효성분을 물에 녹여주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포닌은 거품이 이는 세제작용이 있습니다. 실험결과 사포닌이 난용성 물질을 물에 녹이는 작용이 있음을 알아 냈습니다. 그리고 인삼 알카로이드 성분이 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1964년 이태리 밀라노대학에 유학하는

동안 이를 정리해서 국제학회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그후 여러 국제학술지에 널리 인용되었고 이 덕분에 후에 인삼에 관심을 갖고 있던 미국 일리노이대 약대학장인 루이스박사와 공동연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연물화학은 그때만 해도 화학물질을 인공합성하는 것과 천연물 속에서 유용한 성분을 찾아내는 일이 연구의 초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같은 일은 대부분 기기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내가 30년동안 50여편의 논문을 내놓았으나 요즘엔 대학원생 1명이 일주일이면 이 일을 거뜬히 해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에 와서 보면 그 결과는 우스운 일이지요.

나는 1965년부터 76년까지 12년동안 미국화학회에서 내는 국제학술지인 케미칼 앱스트랙트(Cheical Abstracts)지의 발췌자(Abstracter)로 활동했습니다. 발췌자는 화학분야의 국내외 연구 논문 중 출중한 것을 골라 평가하고 그 내용을 짧막하게 간추려 미국화학회에 보내는 일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윤일선(尹一善)박사와 내가 맡아 했지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성격이 좀 괴팍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서울대 생약연구소장(1966~73년), 대한약학회장(1970~72년)과 서울대 약대학장(1974~77년)일을 맡아 보면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기관장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그 자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약학회장은 물론 약대학장 자리를 고사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버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대학장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는 한심석(韓沁錫)총장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한 총장은 “땡양감사도 저 싫다면 하는 수 없지” 하고 단념했습니다. 그런데 문교장관인 민관식(閔寬植)박사는 나를 호출하더니 “당신이 무엇 대단하다고 총장과 장관인 내가 도와 달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가. 학장을 못하겠다면 장관인 내가 학장은 물론 교수직도 뺄 수 있으니 알아서 하시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수락을 했어요.

■후학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연구업적은 남이 평가해야

학자라면 자기 만족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 가운데 너무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연구업적을 매스컴에 대단한 것 같이 선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연구업적은 자신이 선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업적이야말로 남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학자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학자가 공명심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우인근박사는 1979년 정년퇴직하기까지 40년간 성대를 빼고는 모든 약대에서 천연물화학을 가르쳤다. 천연물화학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서울대 명예교수로 한동안 각 대학 강단에 서서 후학도를 가르쳤고 동남아지역 천연물화학센터 소장(1979~88년)을 맡아 활동했다. 1973년에 식물성분학을 저술한 공로로 학술원 저술상(18회)을 수상했고 국민훈장 동백장(1986년)을 받았다. 지금도 학술원회원으로 이 분야에 자문을 하고 있다. 부인(李季男)과 슬하에 5남매를 두고 있다. 57